

등록번호	농정과-14005
등록일자	2018. 11. 29.
결재일자	2018. 11. 29.
공개구분	비공개(5호)

주무관	농촌인력담당	농정과장	농정국장
이기택	이준복	김영진	이영인
협조자			

강원도여성농업인 심포지엄 개최결과 보고



강 원 도
(농 정 과)

강원도 여성농업인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결과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11. 28(수), 13:30 ~ 17:10
- 장 소 :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 소양홀
- 참가인원 : 100여명(농업인단체장 및 도·시군 임원 등,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주제발표
 - 여성농업인 영농실태와 정책과제(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박사)
 - 여성농업인 지역개발사업에서의 역할(강원농촌활성화지원센터 김지용 박사)
 -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정책과제(강원도 여성특별보좌관 서영주 박사)
- 토론내용
 - (전여농 한영미) 여성농업인전담부서 신설,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 조례반영,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비 증액, 소규모 농가공예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요구(HACCP 설치시 10억이상 비용)
 - (한여농 남숙현)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인력확보방안, 최저임금 수입 확대방안 필요, 다용도작업대 사업 수요 多, 지원량 확대 요청
 - (전도의원 김금분) 가사노동 병행이 매우 어려움,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역량, 생산, 마케팅, 경영마인드 교육 필요,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농정과장 김복진) 금년 2018년 사업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다용도작업대 추진 등 여러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있어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서영주 특보님이 지적하신 건강검진비 지원은 사회보장 협의 중, 농번기 공동급식 90개소가 추진 중에 있음 여성특보가 주제발표 중 말씀하신 남북여성농업인 교류사업 등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농업인센터사업 내용에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여성특보 서영주)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공약을 하기 위해선 여성농

업인센터 기능강화와 공동지역거점역할 필요, 농정부서만의 힘으로는 이 모든걸 하기는 어려우니 여성농업인은 정책 마인드를 가져서 여성농업인 정책부서에 대한 지지자 역할을 하여야 함

- (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시설·인력이 미흡해서 정책창구로 사용가능할지 의심하여 지원 확대를 꺼린 탓도 존재, 다양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겠음

□ 방청객 건의사항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용도작업대 고령화 우선지침은 잘못되었고 적재 적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바람 농작업에 효율적이고 허리통증 경감 하면 뭐함? 지원받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받고 있음 다용도작업대는 농작업시간이 많아 하루종일 허리 굽혀서 허리통증 느끼는 사람 즉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함. 기본적으로 물량을 늘려주고 배정순서도 조정 필요
- 바우처카드 사업량이 부족하고 한여농 물량 등 분배문제에도 감안 필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성평등 교육 필요, 여성농업인 교육은 무의미
- 여성농업인으로서 농번기 가사병행은 매우 어려움, 여성특보가 말한 농번기시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업. 가사도우미 등은 사생활 문제 등이 있어 꺼려짐, 농번기 시 점심문제만 해결해줘도 큰도움이 될 것, 일은 일대로 하고 쉬는 시간 없이 밥차리기 너무 힘들, 그리고 가사 보다는 농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절실함

□ 의견수렴

- 다용도작업대 보급은 강원도 여성농업인 최우선 요구사항
→ 1회추경에 반영 사업재추진(고령농 등 우선순위는 의견검토 반영)
※ 농작업 효율(2~30%) 증대 및 허리통증 경감에 효과적
- 2018년 복지바우처 카드의 사업량 부족
→ 2019년 시군별 사업량 조정 및 전체사업량 증대(10,810명 → 13,500명)
- 농번기 가사병행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
→ 농번기 공동급식은 그대로 추진하되 농가도우미 방안은 중장기 검토

□ 관련사진



<참석자 모습>



<주제발표, 농촌경제연구원>



<농정국장 축사>



<주제발표2, 농촌경제연구원>



<자유토론회>



<질의응답>